

## 아동학대경험과 가정폭력

이 은 주\*

### I. 서론

최근에 아동기 학대경험의 지속적,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Dong et al., 2004). 아동기 학대경험의 영향은 성인기 정신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Dube et al., 2001; MacMilan et al., 2001). 아동기학대 경험과 영향에 관한 연구는 197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 초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성인기 발달적 적응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사회적 인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아동기 학대 경험과 복합적 장애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Graham-Bermann, & Hughes, 1998 재인용).

아동기 학대경험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약 14%-50%의 성인들이 아동기에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아동기에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고 보고하였다(Dube et al., 2001; MacMilan et al., 2001). 뿐만 아니라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아동기에 행동적 문제를 더 자주 보였거나 성인기에 가정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더 많이 되었다(Kalmus, 1984). 또한 아동기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기의 학대 및 방임은 성인기 알코리즘, 약물중독, 가정폭력, 배우자 갈등, 범죄 행동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Dong, Anda et al., 2003; Dube, Anda, Felitti, Groft, et al., 2001; Dube, Anda, Felitti, Felitti, Edwards, & Giles, 2002; Dube, Felitti, Dong, Chapman, Giles, & Anda, 2003; Dube et al., 2003; Dube et al., 2004).

아동기의 심각한 학대나 방임경험은 성인기의 사회적 기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영향은 학대의 재(再)반복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revictimization) 가능성이다. 즉, 아동기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강간, 성추행, 가정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rwin, 1999). 아동기의 외상과 이후 성인기 폭력의 재피해자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기의 학대경험으로 인해 폭력의 재피해자가 될 확률의 추정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Wyatt, Guthrie, & Hotgrass는 아동기에 성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의 여성들이 성인기에 원하지 않은 성접촉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Irwin, 1999 재인용). 다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학대영역으로 확대하여 성인기에 재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조사했다. Messman와 Long(1996)은 아동기의 성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의 성적, 신체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연구에서 아동기의 외상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시켰는데, Sappington과 그 동료들(1997)은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강간이 아동기의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아동기의 학대경험의 결과가 이후 성인기의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Dumas, Margolin와 John(1994)는 폭력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이후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Whitfield, Anda와 Felitti(2003)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이후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학대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고, 더 많이 위험스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기에 더 많은 폭력을 경험할 수록 이후 성인기에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Thakkar, Gutierrez, Kuczen, & McCanne, 2000; Wyatt, Axelrod, Chin Vargas Carmona, & Burns Loeb, 2000).

그리고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학대받으며 성장한 여성들은 폭력이 정상적이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냥 참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적인 가정의 피해아동이었던 여성들은 현재 가정에서 폭력피해자가 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아동기에 경험했던 학대적 행동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Cappell & Heiner, 1990, p. 130).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지속적으로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기의 학대경험으로 인해 성인기에 배우자

와의 관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이후 가정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성인기의 폭력경험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인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인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인기 배우자의 폭력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론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136명의 한인 이민여성들이었다. 연구 참여시기에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텍사스 오스틴 또는 달라스에 거주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18세 이상으로 현재 결혼을 한 상태, 또는 결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남자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16세 이후에 미국에 이민 와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 이민 1세대로 제한하였다.

### 2. 자료조사 절차

####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통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다음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한인 이민여성들만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한인 이민 여성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는 장소와 시설에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모든 설문지는 한글로 구성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설문지 조사 후에 연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받았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원하지 않는 질문에 응답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2) 측정 도구

연구자는 모든 설문지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기의 폭력경험

한인 이민여성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CTSPC; Straus, 1999)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CTSPC는 성인기에 아동기 학대경험을 회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CTS 수정판이며, '13세 아동 이었을 때' 또는 '부모와 함께 살았던 마지막 해'에 부모들로 받았던 학대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CTSPC는 다음과 같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비폭력적 훈육.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5였다.

### (2) 가정 폭력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수준은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Straus, 1997)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CTS2는 가정폭력 실태와 정도를 조사하는 측정도구이며,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정도를 측정한다. CTS2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협상(negotiation), 성적억압(sexual coercion), 신체적 상해(injury). 한국 문화에서 부부간의 성적행동(sexual behavior)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금기(taboo)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적억압(sexual coercion)에 관한 문항은 본 연구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CTS2의 내적 신뢰도는 .93이었다.

### (3) 인구사회학적 조사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연령, 미국거주 기간, 영어구사 수준, 교육, 월수입, 종교적 참여, 성역할, 문화적응 수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종교적 참여는 9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장소 참석, 종교적 영향, 종교지도자 및 구성원들과의 모임/대화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90이었다. Hong(2001)이 개발한 한인 문화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언어, 대중매체, 음식, 친구, 정체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낮은 점수는 낮은 미국문화적응과 높

은 한국문화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70이었다. 성역할은 Hong(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내'가 하는 집안일과 '남편'이 해야 하는 집안일 또는 '함께'하는 집안일이 무엇인지에 구분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중다회귀 분석(multivariate statistics)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Window 11.1을 사용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조사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21-63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2.19세였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0-33년이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3.39년이었다. 영어 구사능력 수준은 연구 대상자의 84.5%가 '유창하지 못함' 또는 '잘못함'으로 응답하였다. 86%의 한인 이민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거주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교육 받은 기간은 8-25년이었으며, 평균 교육기간은 14.33이었다.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60.3%가 월평균 \$4,000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57.3%의 연구 대상자들은 기독교인이었고 34%의 연구 대상자들은 천주교인이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N=136)

변인	빈도	%	유의 %	누적 %	평균(SD)	
연령	20-29	7	5.1	5.3	5.3	42.19(8.07)
	30-39	42	30.9	31.8	37.1	
	40-49	60	44.1	45.5	82.6	
	50-59	19	14.0	14.4	97.0	
	60 세 이상	4	2.9	3.0	100	
	전체	132	97.1	100		
미국거주기간	누락	4	2.9			13.39(8.72)
	5년 이하	34	25.0	25.2	25.2	
	6-10	18	13.2	13.3	38.5	
	11-15	27	19.9	20.0	58.5	
	20년 이상	34	25.0	25.2	100	
	전체	135	99.3	100		
영어구사능력	누락	1	.7			11.9
	능숙	16	11.8	11.9	11.9	
	능숙하지않지만					
	의사소통에	70	51.5	51.9	63.7	
	문제없음					
	잘못함	44	32.4	32.6	96.3	
결혼 지위	전혀 못함	5	3.7	3.7	100	88.0
	전체	135	99.3	100		
	누락	1	.7			
	남편과 거주	117	86.0	88.0	88.0	
	사별	1	.7	.8	88.7	
	이혼/별거	7	5.1	5.3	94.0	
교육기간	기타	8	5.9	6.0	100	14.33
	전체	133	97.8	100		
	누락	3	2.2			
	9년 이하	8	5.9	5.9	5.9	
	10-12	38	27.9	28.1	34.1	
	13-16	71	52.2	52.6	86.7	
월 수입	17년 이상	18	13.2	13.3	100	16.8
	전체	135	99.3	100		
	누락	1	.7			
	\$ 2,000 이하	22	16.2	16.8	16.8	
	\$2,000 - \$ 4,000	30	22.1	22.9	39.7	
	\$ 4,000 - \$ 6,000	33	24.3	25.2	64.9	
종교	\$ 6,000 이상	46	33.8	35.1	100	57.3
	전체	131	96.3	100		
	누락	5	3.7			
	기독교	75	55.1	57.3	57.3	
	카톨릭	45	33.1	34.4	91.6	
	불교	6	4.4	4.6	96.2	
종교	유교	1	.7	.8	96.9	99.8
	무교	4	2.9	3.1	99.8	
	기타	2	1.5	1.5	100	
	전체	133	97.8	100		
	누락	3	2.2			

## 2. 아동기의 학대경험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72.8%의 한인 이민여성들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나, 25.7%는 신체적 학대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73.5%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23.5%는 심리적 학대경험이 한번도 없었다고 답하였다. 한편 84.6%의 한인 이민여성들은 부모의 훈육방법이 비폭력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14.7%는 부모가 폭력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아동기의 학대경험 (N=136)

변인		빈도	%	유의 %	누적 %
신체적 폭력	없음	35	25.7	26.1	26.1
	있음	99	72.8	73.9	100
	전체	134	98.5	100	
	누락	2	1.5		
심리적 학대	없음	32	23.5	24.2	24.2
	있음	100	73.5	75.8	100
	전체	132	97.1	100	
	누락	4	2.9		
비폭력적 훈육	없음	20	14.7	14.8	14.8
	있음	115	84.6	85.2	100
	전체	135	99.3	100	
	누락	1	.7		

## 3. 가정 폭력

본 연구에 참여한 29.4%의 한인 이민여성들은 남자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72.8%의 한인여성들은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5%는 남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신체적 상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가정폭력 경험 (N=136)

변인		빈도	%	유의 %	누적 %
신체적 폭력	없음	96	70.6	70.6	70.6
	있음	40	29.4	29.4	100
	전체	136	100	100	
	누락	0	0		
심리적 폭력	없음	37	27.2	27.2	27.2
	있음	99	72.8	72.8	100
	전체	136	100	100	
	누락	0	0		
협상 기술	없음	11	8.1	8.1	8.1
	있음	125	91.9	91.9	100
	전체	136	100	100	
	누락	0	0		
신체적 상해	없음	102	75.0	75.0	75.0
	있음	34	25.0	25.0	100
	전체	136	100	100	
	누락	0	0		

#### 4. 중다회귀 분석 결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하위범주 중 아동기 신체적 학대경험만 성인기의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기 배우자의 신체적 폭력( $R^2 = .732$ ,  $F=25.767$ ,  $p<.000$ )과 심리적 폭력( $R^2 = .749$ ,  $F=28.139$ ,  $p<.000$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월수입, 종교적 참여, 문화적 적응수준, 아동기 신체적 학대경험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 미국거주기간, 영어구사능력, 교육수준, 성역할, 심리적 학대경험과 비학대적인 훈육방법은 배우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을 예측하지 않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 이민 여성들이 보고한 배우자의 신체적 상해를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월수입, 종교적 참여,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로 나타났으며( $R^2 = .724$ ,  $F=24.785$ ,  $p<.000$ ), 연령, 미국거주기간, 영어구사능력, 교육수준, 성역할, 문화적 적응수준, 심리적 학대경험 및 비폭력적 훈육방법은 신체적 상해를 예측하지 않았다.



<표 4>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신체적 상해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월수입	-.641	.257	-.143*	-.790	.240	-.183*	-.414	.202	-.119*
종교적 참여	1.270	.402	.209*	1.175	.375	.200*	1.586	.316	.336*
문화 적응 수준	-1.395	.134	.573*	-1.557	.611	-.175*			
아동기 신체적 폭력 경험	.600	.134	.573*	.549	.125	.544*	.494	.105	.608*
R2	.732			.749			.724		
Adj. R2	.703			.722			.695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인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정폭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인이민여성들의 월수입과 종교적 참여활동, 미국 문화에 적응한 수준과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경험이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의 학대경험의 하위변인중 신체적 학대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가정폭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한인 이민여성들은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더 많을수록 성인기에 보다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록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지만,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습이론(Kalmuss, 1984)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경험으로 부모의 폭력적 행동만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사회학습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성인기의 폭력발생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유사한 연구로 Shin(1995)은 가정폭력 가해자로 보고된 한인 이민가해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동기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경험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아동기 학대경험이 이후 가정폭력발생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Park, 2001; Doe, 2000)들은 한국사회에서 신체적 처벌이 보편화된 훈

육방법임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72.8%의 한인 이민여성들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73.5%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cher, Forde, McQuaid와 Stein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자의 약 40%와 성인 여자의 약30%가 아동기 학대경험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약13% 중복학대를 경험하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Dong (2004)의 연구에서도 28%의 성인 남자들은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인 이민 여성들은 미국 성인 여성들보다 2.5배나 높게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여성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한인 이민자 전체에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하는데 제한적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기의 학대경험 및 가정폭력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것을 연구자가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미국에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한인 이민 여성들의 학대 및 폭력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하거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또는 언어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들은 아동기의 학대경험을 보고하기 위해 13세 정도에 부모의 훈육방법에 대해서 회상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의 착오, 부정확한 기억 등으로 인해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한인 이민여성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상황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였다.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한인 이민여성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의 학대 경험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인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의 배우자 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의 지속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20여년전 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 여성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정폭력 발생에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학대경험 있는 여성들 또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있는 여성들을 위한 보다 활발한 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인 이민 여성들은 미국 성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비율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학대경험이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방법에서 아동기 학대경험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대

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체벌을 허용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보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상당히 만연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떠한 학대적 행동, 폭력적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는 아동 스스로도 성인으로부터 가해지는 학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누려야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인 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한인 이민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비교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경험을 조사한 후 한인 이민여성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의 하위범주중에 성학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성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 발달 및 정신건강에 지속적,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아동 성학대 가해자들이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아동 성학대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Doe, S. S. (2000). "Cultural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3/4), 231-236.
- Dong, M., Anda, R. F., Dube, S. R., Giles, W. H., & Felitti, V. J. (2003). The relationship of exposure to childhood sexual abuse to other forms of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7, 625-639.
- Dong, M., Anda, R. F., Felitti, V. J.,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T., Loo, C. M., & Giles, W. H. (2004). The interrelatedness of multiple forms of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8, 771-784.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Croft, J. B., Edwards, V. J., & Giles, W. H. (2001). Growing up with parental alcohol abuse: Exposure to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5, 1627-1640.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Edwards, V. J., & Croft, J. B. (2002).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ersonal alcohol abuse as an adult. *Addictive Behaviors*, 27, 713-725.
- Dube, S. R., Felitti, V. J., Dong, M., Champman, D. F., Giles, W. H., & Anda, R. F. (2003).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and the risk of illicit drug use: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Pediatrics*, 110, 564-572.
-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T., Felitti, V. J., & Anda, R. F. (2004).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adult HMO members attending a primary care clinic. *Child Abuse & Neglect*, 28, 729-737.
- Graham-Bermann, S. A., & Hughes, H. M. (1998).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on children: The intersection of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1(2), 1-21.
- Henning, K., Leitenberg, H., Coffey, P., Turner, T., & Bennett, R. (1996). Long-term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witnessing physical conflict between par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35-51.

- 
- Irwin, H. J. (1999). Violent and nonviolent revictimization of women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10), 1095-1110.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MacMillan, H. L., Fleming, J. E., Streiner, D. L., Lin, E., Boyle, M. H., Jamieson, E., Duku, E. K., Walsh, C. A., & Wong, M. Y. (2001). Child sexual abuse and lifetime psychopathology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878-1883.
- Messman, T. L., & Long, P. J. (1996). Child sexual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revictimization in adult women: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397-420.
- Park, M. S. (2001). "The factors of child physical abuse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25(7), 945-958.
- Sappington, A. A., Pharr, R., Tunstall, A., & Rickert, E. (1997). Relationships among child abuse, date abus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 1-11.
- Scher, Forde, McQuaid, & Stein(2004), Prevalence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childhood maltreatment in an adult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8, p. 167-180.